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시장에 나온 매사추세츠의 한 주택. 보스톤을 비롯한 미 전역의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완화되는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주택 시장 상승세 꺾인 징후, 가을 구입 적기될까?

비즈니스저널, 상승세 꺾인 5가지 징후 제시
보스톤의 선호지역 단독주택의 경우 입찰 전쟁 여전
이자율 낮고 점차 상승세 꺾인 가을이 기회 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코

로나바이러스로 촉발된 집값상승 행진이 최근 점차 완화되고 있어 올 가을에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

왔다.

비즈니스 저널은 8일 부동산 시장의 완화 징후를 보도하며 “이번 집값 안정화 징후가 결코 가까운 시일 내 집값의 하락의 의미

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미국내 상당부분에 여전히 뜨거운 주택시장 상승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톤의 주택시장도 여전히 뜨거운 입찰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가을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도 있다고 보스톤의 주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했다.

레드핀(Redfin)의 경제학자 테일러 마씨는 여전히 주택시장은 팬 ▶▶7면으로 계속

미셸 우 보스톤 시장 선거 1위 굳히나

최근 여론조사 연속 30% 넘어서
글로벌/서퍽 여론조사 31%로 선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장 선거에 나선 아시아계 미셸 우 후보가 예비선거 1주를 앞두고 1위 굳히기에 들어간 징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보스톤글로벌과 서퍽대학이 5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셸 우 후보는 31%를 확보 떨어지지 선두에 나섰다. 9월 14일 예비선거를 약 1주 남겨둔 상태에서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6월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 23%에 비해 월등히 많은 표심을 확보한 상태다.

미셸 우의 경쟁상대인 김 제니는 20%, 애니 사에사비 조지 후보는 19% 그리고 앤드레이 캄벨 후보는 18%로 근소한 표차로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존 배로스 후보는 3% 득표에 그쳤다.

토론회 참가 불성실 등 ▶▶8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KATHY SONG PREMIER REALTY GROUP

고객만족도 평가 5/5을
보여주는 고객 최우선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상가, 비즈니스
매입 매매 상담 환영합니다.

Call Kathy Today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2019년 공연된 미코 니시넨의 넛크래커(사진= photo by Liza Volf; courtesy of Boston Ballet)

보스톤 발레, 한국인 무용수 총 6명

2021-2022 정규무용수명단 발표, 김석주 합류
넛크래커 11월 26일부터 정상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발레단 미코 니시넨 예술감독은 7일 2021-2022년 시즌 정규 무용수 명단을 발표했다. 보스톤발레단이 발표한 총 51명의 무용수에는 김석주씨가 아티스트로 신규 합류했다.

보스톤발레단에는 한서혜, 채지영씨 2명의 수석무용수(Principal dancer)와 이선우, 이수빈씨 2명이 세컨 솔로리스트로 활약 중이다. 또

한 아티스트로 이상민씨가 2019년부터 합류했다.

이로써 보스톤 발레단에는 총 6명의 한국출신의 무용수가 올 가을 시즌부터 출연하게 될 전망이다.

새로 합류한 김석주씨는 부산출신으로 한국예술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시실리아 2020년 국제발레경연대회에서 은메달, 서울국제댄스경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보스톤발레단은 팬데믹 이후 처



아티스트로 신규 합류한 김석주씨

음 대면 정상 발레공연으로 넛크래커를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연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화여대 장학생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화여대동창회는 뉴잉글랜드 지역 11학년 이상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화여대동창회 장학생 신청은 이화여대 동문 가족은 물론이외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신청서는

<https://ewuaab.com>에서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두 학기 성적증명서, 추천서, 에세이 등을 신청서와 함께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이혜원 장학위원장(painter914@gmail.com)에게 할 수 있다.

2021 보스톤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톤총영사관은 Grand Master Hong's World Class Taekwondo Center와 공동으로 9.25(토), 로드아일랜드 노스 킹스타운에서 2021 보스톤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각 체급별 검은띠 품새 우승자는 오는 10~11월 개최예정인

2021 (주미) 대사배 태권도 대회(온라인 개최 예정)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대회 참가는 401-885-4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청년모임 아유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차세대-청년 모임인 관악회는 9/25일 토요일 12시에 워터타운에 위치한 아스널파크(485 Arsenal St, Watertown)에서 BBQ 파티를 개최한다.

회비는 없으며 참가대상은 90년대 학번 이후의 서울대 동문 및 가족과 친지로, 참가를 원하는 동문은 관악회장 신진우(sjinu37@snu.ac.kr) 동문에게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14.95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비빔냉면 14.95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톤 곳곳에서 노숙자 도운 한인 단체, 70여명 자원봉사상 수상

하버드홈리스미션, 장수인씨 등 한인 9명 대통령 평생업적상 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노숙자를 위한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한인 청소년봉사 단체 '하버드홈리스미션' 소속 봉사자 9명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수여하는 평생업적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40여명이 골드상을, 7명이 은상, 11명이 동상을 수상했다.

프레지던트발린티어서비스어워드(PVSA)는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를 격려하기 위해 인증된 자원봉사단체에게 수상하는 상으로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등으로 분류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수여하는 대통령 자원봉사상이기도 하다.

하버드홈리스미션은 렉싱턴, 벨링턴, 벨몬트 등 5개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한국교회 학생들,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숙자들과 불우 이웃들에게 음식을 담은 사랑의 바구니(care kit)를 전달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햄버거, 볶음밥, 파스타, 샌드위치, 쿠키 등 여러 가지 홈메이드음식을 직접 만들고 포장 패키지를 만들어 이를 노숙인

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바구니 포장도 예쁘게 꾸미고 물병을 더하는 한편 시원한 과일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까지 기울였다.

여름방학 중에는 목, 금, 토, 일 4일 동안 TD가든/노스스테이션, 사우스스테이션, 보스톤커먼, 데이비드스퀘어, 포터스퀘어, 차이나타운, 센트럴스퀘어, 하버드스퀘어 등 보스톤 곳곳을 다니며 노숙자들을 만났다.

이번 봉사에서는 인도 봉사 단체인 Ekam' 과 손을 잡고 중국 봉사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또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암치료를 받는 이들과 요양병원의 노인분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으며 국가유공자를 찾아가 특별한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서머빌, 로웰, 하버드 소재에 있는 쉼터를 찾아가 피자와 음료, 스낵, 그들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봉사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의 귀중함과 나눔과 봉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봉사자들도 나이와 상관 없이 함께 참여하며 더욱 훈훈한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과 다른 점은 2021년 많은 사



(좌) 하버드홈리스미션은 렉싱턴, 벨링턴, 벨몬트 등 5개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한국교회 학생들,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 보스톤 시에서 마련해준 노숙자용 냉장고. 나눠주고 남은 음식들을 넣어놓으면 배고픈 노숙자들이 자유롭게 꺼내먹어 곧 텅텅빈다 (사진=하버드홈리스미션 제공)

람들이 백신을 맞아 노숙자들에게 전달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 학교마다 '하버드홈리스미션' 클럽을 만들어 계속해서 봉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버드홈리스미션 단체에 2021 사회봉사상 (Presidential Volunteer Service Award)을 수여하여 이들의 업적을 치하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도 이들 한인청소년 멤버들과 학부모 30여명을 초대하여 한인청소년들의 선행을 격려했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한성경 대표(781-250-7588)에게 연락하면 된다.

<https://www.harvardhomeless-mission.com>
연락처: 781-250-7588

Lifetime Achievements Presidential Awards: 장수인, 문혜빈, 김정민, 김은아, 조복순, Nana Lee, Euna Kim, Sally Choi, Eva Chow.

Gold Award presidential: Thomas Lee, Peter Yoon, Brett Fortier, Young Lee, Eunjung Kim, Daniel Ha, Angelina Ha, Jiwon Lee, Andrew Lee, Rachel Cho, Catherine Chow, Erin Han, Youngwoong Cho, Jongmin Kim, Yoonjin Choi, Sungmin Choi, Soyou Kim, Choi Minju Kim, Daniel Kim, Danbi Kim, Jae - Hwan Kim, Arun Kodumuru, Arya Kodumuru,

Jeong- Won Choi, Ava Kam, Christopher Chung, Joshua Chung, Bo kyung shin, Ji Hye Lee, Ju Eun Lee, James park, Leon Park, Sophia Choi, Uni Hui Daley, Young K. Jung Soo Y Kim, Arielle Min, Christian Han, Frank Chow, Jackie Lam, Hana Lee, Christopher Han, Shin Woo, Sanieel Park.

Sliver: Erica Cho, Faith Choi, Cherie Chin, Joanna Yeh, Jeremy Yeh, Lillian Yeh, Justine Ko.

Bronze: Ruben Lee, John Kim, Chae-Rin Lee, Chae-won Lee, Eddie Choi, Heetae Hwang, Elliot Cho, Christopher Chow, June Kim, Chloe Chin, Brett Fortier.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노인회가 보스톤 항구에서 타고갈 유람선의 모습(사진=노인회 제공)

노인회, 추석맞이 보스톤 항구 유람선 점심식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미노인회(회장 윤철호)는 9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보스톤 항구에서 출발하는 추석맞이 유람선 점심식사를 개최한다.

보스톤 시포트크루즈 런치에는 노인회원 및 가족 그리고 일반 한인 모두가 참여 가능하다. 보스톤 한미

노인회원인 경우 \$30만 부담하면 참가 가능하다. 비회원인 경우 개인당 \$80이다. 다만 노인회에 가입하는 시니어의 경우 \$30만 부담해도 참가할 수 있다.

노인회는 선착순 80명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 일요일은 9월 12일까지 총무 테일러 (857-330-2885), 회계 최영진 (978-494-9876) 씨

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일시: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오전 11:00 - 오후 2:00

• 비용: 회원 \$60(개인부담 \$30+ 노인회 부담 \$30), 비회원 \$80(노인회 가입시 \$30)

• 만나는 장소: 200 Seaport Blvd.(보스톤 시포트 호텔 맞은편) bsotonkorean@hotmail.com

21일 추석 고국배송 선물 도착하려면 13일까지 주문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1일 추석을 앞두고 한국 추석배송 선물을 도착하게 하려면 최소한 13일까지 주문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추석선물은 H마트 고국통신판매

와 더불어 다양한 고국추석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송금서비스의 경우 와이어 바알리를 이용해 송금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다. 와이어바알리는 이번 추석송

금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 1등에게 비행기표를 제공하는 등 사은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bsotonkorean@hotmail.com



정혜민 작가의 작품 birch woods 2021

수레아트 갤러리 정혜민 작가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라이 소재 수레 아트 갤러리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1년만에 갤러리를 오픈한다.

이번 갤러리는 한국 정혜민 작가를 초청해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1달간 가을 나들이를 나서는 한인들에게 선보인다.

9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프닝 리셉션을 개최하며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도 갖는다. 오프닝에는 음악연주도 곁들여진다.

다음은 정혜민 작가의 그림에 대한 평이다.

"정혜민의 기법은 산들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시들어가는 순

간적 진실, 어린 시절의 단계, 석양의 붉은 노을, 눈 덮인 도시 풍경 등을 순간의 의미와 임팩트를 붓과 물감으로 보존하는 작업을 한다. 화면 뒤에 남겨진 생생함과 에너지로 캔버스 표면을 따라 우리 삶의 폭을 포착하고 있다."

전시기간: September 15th - October 16th

작가와의 만남-Opening reception: September 18th 2-5pm

전시장소: SooRyeArt Gallery (수레아트갤러리)

문의: 603.319.1578

11 Sagamore Road, Rye, NH 03870

www.sooryeartgallery.com

2021년도 장학생 모집

이화여대 동창회 보스톤 지회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한인 학생들이 많이 신청해주길 바랍니다.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Boston is proud to announce the Ewha Scholarship Program. Please find a description of the program and the application form in the website, <https://ewuaab.com/>

•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11학년 이상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이화여대 동문 가족 이외의 지역 한인 학생도 해당)

• 신청 마감일: 2021년 10월 30일

• 선발기준: 신청서 참조

• 신청서 및 신청 방법: 동창회 웹사이트, <https://ewuaab.com/> 참조

• 문의: 장학위원장 이혜원, painter914@g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보스톤지회
회장 신은경, 장학위원장 이혜원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60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24 ⁹⁹	\$34 ⁹⁹	\$39 ⁹⁹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립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재외국민 정책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한국의 윤건영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외국민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질의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며 재외 국민의 참여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외교정책 제언을 위한 설문 링크는 <https://forms.gle/zG-wShk7WVt52tKXW7>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한국 외교정책 발전을 통한 국격

향상, 이를 통한 재외동포 및 해외 거주 국민들의 안전 및 편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 준비에 앞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재외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는 대한민국 외교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이번 설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질의 내용에는 거주 대륙,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는 정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 거주 국가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거주 국가와 한국 관계의 선호도 등이다.

또 공공외교 개념, SNS를 통한 한국 소개 경험, 아시아나 한국인으로 인종 차별 경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반도 남북관계 향후 예상, 대사관이나 영사관 서비스 평가 등이 포함됐다.

이제는 플루샷 접종해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두가 코로나 부스터샷의 접종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9월에 접어들며 다시 플루샷의 계절이 돌아왔다.

전문가에 따르면 플루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두가지 이유는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플루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마스크 착용의 효과로 플루 감염이 뚝 떨어졌지만 올해에는 이미 어린이들 사이에서 호흡기 질환이 돌아다니는 등 플루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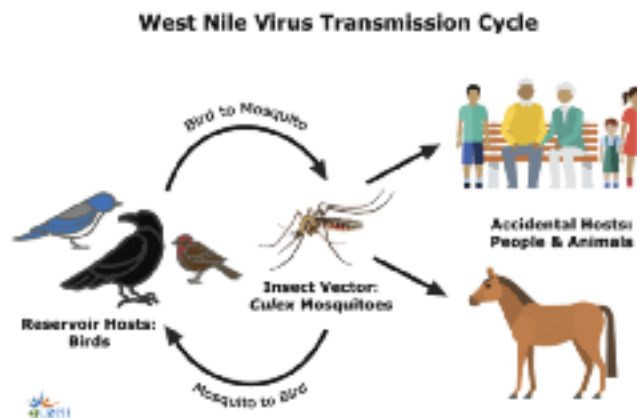


예년의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플루샷은 생후 6개월 이후면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플루가 시작되므로 9월 중순에

는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접종해야 본격적인 핑스기빙 이동시에 전염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hsb@bostonkorea.com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2명 더 감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2일 미들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50대 및 70대 남성 2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1일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첫번째 웨스트나일 감염환자를 확인한 이후 바로 다음날 2명으로 추가로 발표했다.

보건부는 그레이터보스턴 지역과 브리스톨 타운 일부 그리고 우스터 카운티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위험도를 낮음에서 보통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보건부는 총 38개타운의 WNV 위험수준을 보통으로 높였다. 해당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다. Beverly, Danvers, Lynn, Mar-

blehead, Middleton, Nahant, Peabody, Salem, Saugus, Swampscott and Wenham in Essex County; Agawam, Chicopee, East Longmeadow, Longmeadow, Springfield and West Springfield in Hampden County; Bedford, Billerica, Burlington, Carlisle, Lexington, Lincoln, Natick, North Reading, Reading, Sudbury, Wayland, Weston and Wilmington in Middlesex County; Dedham, Needham, and Wellesley in Norfolk County; Chelsea, Revere and Winthrop in Suffolk County; and Grafton and Upton in Worcester County.

hsb@bostonkorea.com

추석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행사기간 : 9/10(금) ~ 9/26(일)



요즘이니까
면역력
추석이니까
정관장

요즘처럼 면역력이 소중한 때가 없습니다.
추석처럼 정관장이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영업시간안내
10:30am - 6:30pm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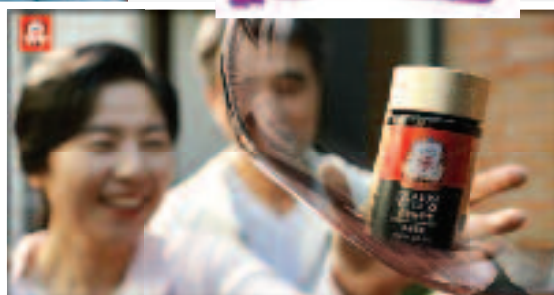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추가증정



홍삼 달임액,
에브리타임 **2개** 구입시
추가 10포 증정



\$250 이상 구입시
이네제틱 20포 증정



**최고의 홍삼제품으로
가족의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원료 관리 단계부터 제조, 제품의 완성 단계까지 8년의 시간동안 29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의 안정성 검사를 7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마스크를 쓰고 대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학교 감염 증가에도 주정부 대면수업 유지

주지사, 원격 수업 선택지로 고려 안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 동북쪽에 위치한 멜로즈는 학기 시작과 더불어 2개 학급이 격리에 들어갔다. 이처럼 대면수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정부는 계속 대면수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각 학교는 일정 정도의 수업일수를 조정할 여유가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를 결석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대면 수업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계속 유

지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접종 받아야 한다. 우리의 클리닉을 잘 활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해양 및 생활 과학 관련 일자리를 훈련하기 위해 사용될 연구 실험실 오픈행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지사는 계속 학교들과 발생하는 신규확진자들에 대한 대처에 관해 논의 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현장 백신 클리닉 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10월까지 주내 약 100여 개 이상의 학교에 백신 클리닉을 운영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멜로즈 학교 관계자는 어떤 학년의 몇 명의 학생들이 격리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주지사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한 계속 신규 감염자가 있을 것” 이라고 말하고 “현재 매사추세츠에서 5백만명의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했다면 더 이상 확진자, 입원자수, 사망자수 등을 집계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말 사이 총 5,484명 신규 확진

병원 입원환자 601명, 중환자 164명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1일 감염 통계를 발표하지 않은 지난 주말 3일동안 매사추세츠에서는 5,484명이 신규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코로나바이러스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주 보건부의 9월 7일 발표에 따르면 주말동안 12명이 추가로 사망해 누적 사망자는 17,921명에 달했다. 매사추세츠 누적확진자는 총 710,175명이었다.

7일 평균 양성확진자는 2,32%였으나 특히 병원 입원환자가 증

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코로나로 현재 매사추세츠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총 601명이며 이중 164명이 중환자실, 92명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

지난 7일간의 감염자 추세를 보았을 때 여전히 20-29세 젊은 층이 3,9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39세층이 3,369건으로 뒤를 이었다. 10-19세 사이는 2,328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0-9세 사이도 2,225명으로 50-59세의 2,180명보다 많았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돌파감염으로 162명 사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보건부의 7일 발표에 따르면 총 4,531,700명의 백신 접종완료자 중 0.004퍼센트에 달하는 162명이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 돌파감염으로 사망했다. 따라서 백신접종자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한 주동안 돌파감염 사망자는 18명이었다. 이 수치는 현재 주내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인 것에 비하면 정말 적지

않다.

보건부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서는 총 23,858명이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된 확진자였으며 이는 전체 백신 접종자의 0.53명에 달한다. 지난 한주동안 4,415명이 돌파감염으로 확진됐다.

돌파감염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도 762명에 달했으며 돌파감염의 평균 연령은 71.1세였고 이중 54%는 기저질환자였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좋은 치과, 좋은 치아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주택 시장 상승세 꺾인 징후, 가을 구입 적기될까?

▶▶1면에 이어서

데믹 이전의 마켓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 봄같은 광적인 입찰경쟁은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한 주택에 수십명의 오퍼가 몰리고 셀러가 요구한 리스팅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팔리는 주택시장 경향이 이제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매매계약에 들어간 주택은 약 9% 상승했지만 이는 2020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상승 수치다. 또한 매매 건수는 2021년 4월 이래 가장 낮다.

-매물이 시장에 나와 팔리기 까지 걸리는 시간의 중간치는 18일이며 이는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15일이 걸려 사상 최단기간을 기록했던 것보다 조금 길어졌다. 참고로 지난해의 시장에 머무는 시간의 중간값은 33일이었다.

-전체 거래된 주택 중 평균 5.1%의 주택이 가격하락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보다 1%가 많은 수치다. 또한 2019년 10월 13일 이래 4주 기간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시장이 완화되는 가장 큰 지표다.

-51%의 주택이 구매자 요구가격

보다 높게 팔렸다. 이는 1년전보다 32%나 높은 수치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마감된 4주간의 기간에 기록한 55%에 비해서는 떨어진 수치다.

-48%의 주택이 첫 2주만에 오퍼를 받아들여 매매에 들어갔다. 이는 1년 전의 44%보다 높지만 2021년 3월 28일로 마감된 4주 기간의 정점을 이뤘던 시기에 비해서는 8% 떨어진 수치다.

레드핀의 수석경제학자 대릴 페어웨더는 “주택시장은 분명하게 바이어들에게 약간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은 팔리는데 좀더 많은 시간이 걸려 구매자들에게 오퍼를 넣을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주택가격은 정점에 다가가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더 오래 기다려 서둘러 구입할 이유가 없어졌다. 더 많은 셀러들이 자신들의 리스트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가격 안정화의 징후가 있는 것과 달리 상당수의 시장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월 27일까지 모기지 신청은 더 많아졌으며 주택 구매 투어는 올해 들어

11% 증가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7% 많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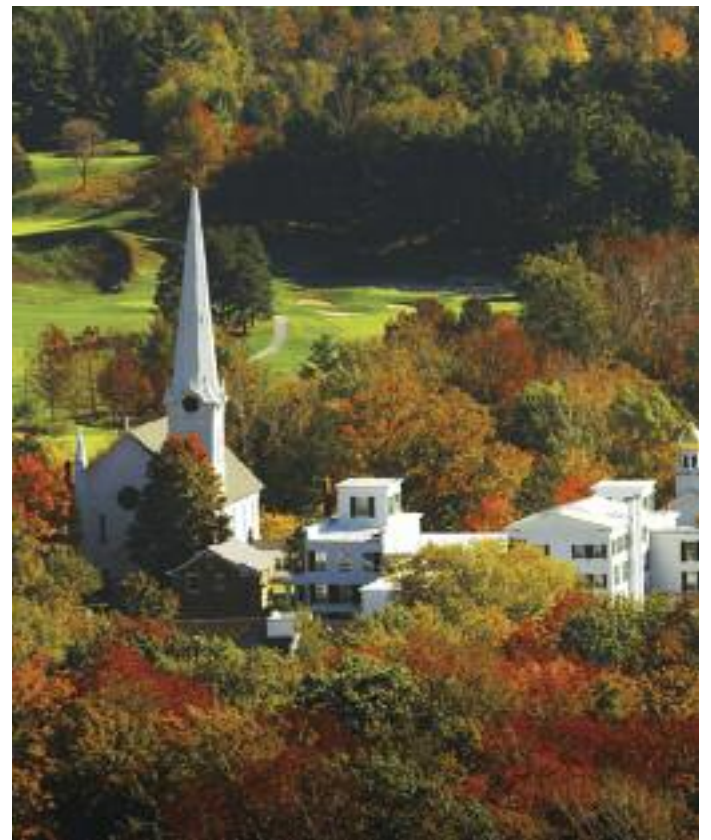
레드핀의 홈바이어 수요 지수는 지난 수 조금 더 올라 4월 11일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레드핀 에이전트들에게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측정하는 지수다.

케임브리지 캔달스퀘어에 사무실이 위치한 프로리얼티 수잔안 대표는 보스톤의 경우 “입찰경쟁, 즉 비딩워(bidding war)는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들은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강하며 선호지역의 경우 매물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JYP리얼티 백영주씨는 본지 칼럼에서 “집을 내 놓는 분들이 없지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다”며 조금 집값이 안정이 되는 가을에는 “아직도 집을 사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적었다.

비즈니스 저널 부동산 애슐리 페이히 편집장은 매물이 지난 7월 초 팬데믹 수준을 넘어 시장에 나타남으로서 주택시장의 경향이 바뀌는 징조가 있다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에퀴녹스골프리조트앤스파 조감도(사진 = A view of the historical Equinox Golf Resort & Spa from above. / Courtesy photo)

트레블+레저, 버몬트 타운 최고의 가을 단풍 명소 뽑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보스톤에서 서북쪽으로 세 시간 반 떨어진 버몬트의 작은 타운 맨체스터가 가을 단풍의 명소로 지명됐다.

럭셔리 잡지 트레블+레저는 버몬트의 타운 맨체스터를 미국내 7개 독특한 가을 단풍길 중의 하나로 선정했다.

버몬트의 남서쪽에 위치한 타운 맨체스터는 그린마운틴과 타코니마운틴 사이에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지역이다. 맨체스터는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긴 272마일의 트레일의 일부

를 차지하고 있다.

가을철 태양을 즐기길 원하는 경우 세븐 스프링가든을 방문하거나 조각공원에서 조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몇마일 떨어진 매드탐오차드(Mad Tom Orchard)에서 애플피킹을 할 수 있다.

맨체스터는 링컨의 장남이 살았던 링컨 패밀리 홈 힐딘(Hildene)이 위치해 있고, 서던버몬트 아츠센터, 플라잉피싱뮤지엄 등도 있다. 또한 브룩브라더스, 폴로, 제이크루 등의 팩토리스토어도 있는 곳이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여권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수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력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미셸 우 보스턴 시장선거 1위 굳히나

▶▶1면에 이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김 제니 보스턴 시장 대항은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2% 빠졌으며, 역시 구설수에 올랐으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며 기염을 토하고 있는 에시비 조지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했다. 보스턴 글로브의 지지를 받은 캄벨 후보 또한 상승세를 보이며 2위 후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단 2명만 뽑혀 올 11월 2일 총선에서 결선을 갖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셸 우 후보는 확실한 1위 굳히기로 11월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를 시행한 서퍽대학 정치리서치센터 데이비드 펠레오로고스 소장은 밝혔다. 그는 “미셸 우의 리드는 현재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보층의 퍼센트보다 크다”며 “이는 미셸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한 좌석을 확실히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펠레오로고스 소장은 이제 투표가 임박했으므로 앞으로 남은 수요일, 목요일의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들은 거의 자신들의 표를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었다. 그는 또한 이번 예비선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참여가 낮을 것으로 보여 부동산의 표심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부동산은 6월 22%에서 현재 8%로 급감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2위 후보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셸은 아시안층 70%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10년 이하 거주한 신규 진입층 중 50%,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의 45%, 그리고 진보층의 43%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18-34세의 젊은 층에서도 40%의 지지를 받았다.

유권자들은 교육(20%), 주택(19%), 인종차별과 평등(17%), 경제와 일자리(14%)를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경찰개혁(4%), 기후변화(3%), 마약(1%), 코로나바이러스(1% 이하)에 대해 적은 관심을 보였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가장 많은 14%가 부동산이었으며 백인 유권자에서는 미셸 우가 39%, 에시비 조지가 22%, 캄벨이 21% 그리고 제니가 11%였으며 4%가 부동산이었다.

hsb@bsotonkorea.com

캐나다 미국관광객 입국 허용 그러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캐나다가 3주 전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미국 관광객들의 입국을 허용했지만 델타변이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인들은 캐나다 방문을 꺼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입국은 약 219,000명으로 첫주만에 2배 가량 늘었지만 2019년 같은 시기의 15%에 그치는 수준이다.

항공기를 통한 입국은 67%가량 상승했지만 2019년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8월 9일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일반관광목적의 미국 방문을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캐나다인의 미국 육로 방문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다만 백신접종자와 음성판정자의 경우 항공 방문은 허용하고 있다.

퀘벡의 파크 사파리(Parc Safari)의 장 피에르 랑거씨는 미국 번호환을 많이 보지 못했다고 방문객의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랑거씨는 팬데믹 운영을 위해 고용 인원을 줄이고 동물 수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경제는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로부터 여전히 회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델타변이로 인한 또 한차례의 팬데믹은 캐나다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캐나다 경제는 2021년 2사분기에 1.1% 성장으로 위축됐으며 이는 25%성장 예측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수치다.

과거 많은 미국인들은 저녁을 먹기 위해 국경을 넘어 갔다고 오곤 했었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하루만에 왔다 가는 것으로는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아 대부분 친지 방문 등의 이유로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페린 비티씨는 “아직도 국경에서는 어떤 것이 규정인지 혼란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가 아직도 캐나다인들의 육로 입국을 막고 미국인들의 캐나다 여행을 재고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캐나다 방문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의 67%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미국의 경우 겨우 52%만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비록 델타변이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증가율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국경개방 후 아주 적은 증가폭이긴 하지만 일부는 개방의 혜택을 톡톡히 보는 곳도 있다.

캐나다의 매니토바에 위치한 처치힐 와일드(Churchill Wild)는 다시 관광상품 운영을 재개했다. 북부 매니토바에 환경숙박시설을 운영하며 야생 북극곰과 북극고래 북극여우, 노던 오토라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하는 처치힐와일드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처치힐와일드(Churchill Wild)는 야생 북극곰과 북극고래 북극여우, 노던 오토라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재는 감소된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9월 중순까지 모든 예약 마감 상태라고 . 캐나다는 9월 7일부터는 전세계 백신접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십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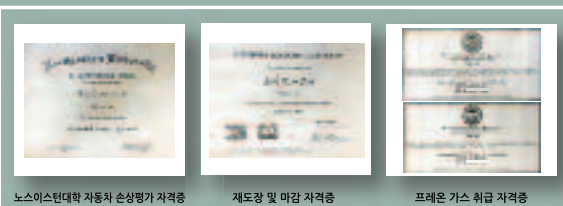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요가송의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목 통증과 이별하는 힐링요가 10분

오랜 시간 컴퓨터 업무를 보거나 스마트폰 시청으로 가장 먼저 빠근해지기 쉬운 목과 어깨.. 상태가 악화되면 목디스크와 어깨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뭉친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10분 초간단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상에서 목 어깨 스트레칭 맛집 편을 찾아 꼭 따라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울 첫번째 자세는 Side Neck Stretch 입니다.

STEP 1. 앉은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 옆면을 지긋이 눌러 목의 왼쪽이 길게 늘어날 수 있게 합니다.



STEP 2. 왼 어깨는 계속해서 귀에서 멀리 바닥으로 보내줍니다.

POINT! 무리해서 손으로 머리를 누르지 않아도 중력의 힘으로 충분히 자극 느낄 수 있을 거예요.

STEP 3. 영상 속 변형자세에 따라 충분히 스트레칭한 후 제자리로 돌아와 바로 반대쪽 목도 같은 방법으로 이완해줍니다

두번째 자세는 Eagle Arm Stretch 입니다.

STEP 1. 두 다리를 앞으로 뻗은 앉은 자세에서 오른 팔꿈치를 왼 팔꿈치 위로 올려 한번 혹은 두 번 팔을 교차해줍니다.

STEP 2. 숨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를 가슴에서 멀리 위로 보냈다가 내쉬는 숨에 복부 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POINT! 귀와 어깨의 공간을 유지하며 목의 긴장감을 최대한 풀고 진행해주세요

STEP 3. 영상 속 타이머에 따라 호흡과 함께 움직여주고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관련 영상은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꾸준히 하고 있는 스트레칭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바쁜 일과를 마치고 자기전에 바닥에서 혹은 침대위에서 하셔도 좋아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쉽게 경직되고 통증을 느끼기 쉬운 목과 어깨를 이렇게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주시면 자세교정 및 통증개선과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칼럼과 유튜브를 보시고 따라하다, 혼

자 운동하는데 한계를 느끼시고 개인적으로 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의 문의가 있어, 기존의 라이브줌 그룹 수업 외에도 ZOOM MINI PRIVATE 수업(30분, 45분 수업 선택)을 진행하고 있어요. 원하는 시간대에 저와 1:1 비대면 자세교정 및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카톡 혹은 메일로 연락주세요. 전화 무료상담도 환영입니다.

라이브 ZOOM 무료 체험 온라인 클래스

현재 매주 3회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아름다움과 긍정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이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ee@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패트리어츠 이번 주말부터 2021시즌 시작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풋볼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레이버데이 위크엔드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프로 풋볼(NFL)에서는 올해 32개 팀이 첫 17경기 정가시즌 경합을 벌이게 된다.

보스턴 팀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12일 일요일 오후 4시 24분 마이애미 돌핀스와 첫 경기를 갖는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맥 존즈를 새로운 선발 쿼터백으로 선정, 올해 플레이오프를 노린다.

밸리치 감독은 존즈 외에도 거액을 들여 수비팀을 보강해 지난해 9승7패의 부진을 씻고 플레이오프 및 우승에 도전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새로운 선발 쿼터백으로 선정된 맥 존즈

패트리어츠 경기 스케줄

- Week 1: 4:25 p.m, Sept. 12, vs. Miami Dolphins
- Week 2: 1 p.m., Sept. 19, at New York Jets
- Week 3: 1 p.m., Sept. 26, vs. New Orleans Saints
- Week 4: 8:20 p.m., Oct. 3, vs. Tampa Bay Buccaneers
- Week 5: 1 p.m., Oct. 10, at Houston Texans
- Week 6: 4:25 p.m., Oct. 17, vs. Dallas Cowboys
- Week 7: 1 p.m., Oct. 24, vs. New York Jets
- Week 8: 4:05 p.m., Oct. 31, at Los Angeles Chargers
- Week 9: 1 p.m., Nov. 7, at Carolina Panthers
- Week 10: 1 p.m., Nov. 14, vs. Cleveland Browns
- Week 11: 8:20 p.m., Nov. 18, at Atlanta Falcons
- Week 12: 1 p.m., Nov. 28, vs. Tennessee Titans
- Week 13: 8:15 p.m., Dec. 6, at Buffalo Bills
- Week 14: Bye week
- Week 15: TBD, Dec. 19, at Indianapolis Colts
- Week 16: 1 p.m., Dec. 26, vs. Buffalo Bills
- Week 17: 1 p.m., Jan. 2, vs. Jacksonville Jaguars
- Week 18: 1 p.m., Jan. 9 at Miami Dolphins

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패트리어츠 게임의 하이라이트는 10월 4일 4주차 게임이다. 이 게임에는 탐 브래디가 이끄는 탐파베이 버캐니어가 원정경기를 벌인다. 이날 경기는 친구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경기일뿐만 아니라 브래디와 밸리치 감독 간에 패트리어츠 다이내스티의 진정한 스타를 가리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탐 브래디는 지난해 패트리어츠를 떠나 빌 밸리치 감독하

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시스템 쿼터백이라는 오명을 씻고 7번째 슈퍼볼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탐 브래디 자체가 시스템을 만드는 쿼터백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시즌이었다.

패트리어츠는 올 시즌 전면 개장을 개방한다. 백신증명서와 음성판정서를 의무화한 일부 구장과 달리 패트리어츠는 별다른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올해 사과 굵고 맛있을 듯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6월의 폭염과 7월 한달 동안의 폭우 등 올 여름은 예년과 달랐다. 이같은 이상 기온이 올 가을 사과 등 과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사과농장들은 올해 크고 맛있는 사과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토거스 패밀리 팜의 앤드레 토거스 씨는 보스턴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7월의 많은 비는 사과와 크기와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 농장주는 6월의 더위와 7월 비로 “사과는 아주 크고 과즙이 풍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비는 사과의 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하지만 많은 비는 배의 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코너스 팜의 밥 코너스 씨는 “애플의 농사는 정말 잘됐으며 오이와 토마토도 이처럼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 농장주들의 남은 걱정은 허리케인과 이른 추위로 인한 서리가 빨리 내리는 것이라고.

hsb@bostonkorea.com



www.ksneusa.org (1975~2021년 46주년)

* 뉴 잉글랜드 한국 학교 - 2021학년도 가을 학기 등록부 *

NE지역 최대 규모인 뉴 잉글랜드 한국 학교는 늘 최선을 다해 최고의 2세 교육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가을학기: 2021.9.18 ~ 2022.1.22

가을학기는 온라인으로 시작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신입생 소집(온라인): 9월 4일(토)~9월 11일 (각 과정별로 인터뷰/평가 진행)

과정 안내: 기초-고급과정(22반) 이중언어 과정(6) 성인반(2) 특별교육(16)

병아리반(9월 기준 2.5~3세) 기초1(해님 & 달님반/3.5~4세) : 선착순 배정

대면수업 때 학교 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오크힐 중학교)

온라인 수업 학교 주소: 각 학급별 온라인 교실에서 수업 진행

등록기간: 2021년 8월 15일(재학생), 8월 31일까지 (신입생)

오전 및 오후 프로그램 수업 과목 안내: 과정별 수업 시간은 다를 수 있음

(1) 오전반(9:30am-12:40pm)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작문 교육(1~5반)

음악교육•사물놀이•종이접기 교실 등 전통 및 문화교육

(2) 오후반(대면수업 시작 후 등록 가능): 미술반•발레•태권도•사물놀이•서예반

수업료(오전 & 오후 프로그램) * 마감일 이후 등록: Late Fee \$20

(1) 오전: \$340/1인 \$620/2 \$770/3인

(2) 병아리반: \$180

(3) 성인반: \$230

→ 2인 이상 등록하는 가정은 등록금의 3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수표는 Korean School of New England로 작성해 주십시오.

등록금 보내실 주소: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Il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뉴 잉글랜드 한국 학교에서 2세 교육을 담당하시려는 선생님들께 드시니다

한글교육•한국역사•문화교육•음악•미술교육 등 2세 교육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교사/보조교사로 2세 교육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십시오.

* 모집 부문: 유아 교육•한글•문화•음악교육•역사 교육 등 2세 교육 전 부문

* 교사 자녀 장학금 및 기타 교사회 각종 지원

교사지원은 아래 연락처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Homepage : www.ksneusa.org

연락처: 남 일 교장:(508) 523-5389(C), 카카오톡 ID: KSNEUSA

Email: koreanschool.ne@gmail.com

2021학년도 가을 학기 신입생•재학생은 마인스쿨 (언어 및 학업) 등록부 가 접수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등록부(Registration form)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함께 써 주십시오.

한글이름(1): _____

영문이름 _____ 학생 이메일: _____

생년월일(년월일): _____ 성별 : 남(Male) _____ 여 (Female) _____

출생지(Birth Place): _____ 학년(2021년): _____

부모/보호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집주소: _____

Email: _____

Cell(1): _____ Cell(2): _____

비상연락: (성명) _____ (전화) _____

신입생만 기록(New Students Only): 한글실력(Korean Level)•자세히 기록

말하기(Speaking): _____

듣기 (Listening): _____

읽기 (Reading) : _____

쓰기 (Writing) : _____

수업료 \$ _____ \$340/1, \$620/2, \$770/3명

(오전수업) (병아리반: \$180, 성인반: \$230)

기부금: \$ _____ (Tax Deductible)

총 액: \$ _____ (마감일 이후 Late Fee \$20)

학부모/후원자 여러분의 기부와 후원(Donation)을 부탁드립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비영리 교육단체(Non-Profit Org)로 등록되어 있어 서 2세 교육을 위해 후원해 주신 기부와 후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Tax deduction benef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의류점에서 마스크 쓴 쇼핑객들

연준 "미 경제성장, 중간 속도로 '저속 기어' 변환"

"델타 변이 후 외식·관광 축소로 경제활동 감속"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8일(현지시간) 미 경제의 회복 속도가 다소 느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지난 두 달간 "전체적인 성장이 중간 속도로 살짝 저속기어 변환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7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오는 21~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경제 회복이 느려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의 유행 탓으로 분석된다.

연준은 "경제 활동의 감속은 대부

분의 관할 구역에서 나타난 외식, 여행, 관광 축소에 대체로 기인한다"며 "이는 델타 변이의 급증에 따른 안전 우려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 문제에 대한 염려도 베이지북에 담겼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12개 관할 구역 중 절반이 "강한" 물가 압력을, 3곳은 "보통의" 물가 압력을 각각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연한 자원 부족 때문에 생산 가격 압력이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통해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연준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업들은 단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여

히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계속되는 공급 교란과 자원 부족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서는 9월 FOMC에서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계획 논의를 앞두고 나와 더욱 주목된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서 "경제가 기대한 대로 계속 개선된다면 올해 안에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며 연내 테이퍼링 시작에 찬성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 우려가 잇따르면서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amp;포어스(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나홀로 고공행진하던 나스닥 지수도 이날 0.57% 하락했다.

irstcircle@yna.co.kr

ECB, 코로나 대응채권 매입속도 제동...라가르드 "테이퍼링 아냐"

(베를린=연합뉴스) 이울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이 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채권 매입 속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대대적인 돈 풀기를 완화하기 위해 한걸음 전진한 것이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50%와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CB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대응채권 매입 속도를 지난 2개 분기보다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최근 자금조달 여건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PEPP 대응채권 매입속도를 지난 2개 분기간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로 완화해도, 자금조달 여건이 유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응채권 매입규모는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 1조8천500억 유로(약 2천566조원)로 유지한다.

ECB는 앞서 지난 3월 2분기 코로나19 대응채권 매입 속도를 1분기보다 상당히 높이기 위해 한 달 6개월 만에 속도를 다시 낮추기로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여성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하지 않는다(The lady isn't tapering)"면서 "그 여성은 돌아서지 않는다(The lady's not for turning)"는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 명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은 유리한 자금조달 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 매입 속도의 눈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CB가 코로나19 이후 돈 풀기 속도를 낮추기로 한 배경에는 급등하는 물가가 있다.

ECB가 정한 물가상승률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다. ECB는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전략을 수정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바로 아래에서 2%로 18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독일의 소비자물가가 28년 만에 최고치인 3.9%로 치솟는 등 소비자물가 급등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참고하는 물가지표인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6% 올라 두 달 연속 30년 사이 최대폭 상승기록을 갈아치웠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yulsid@yna.co.kr

신신마트 당일배송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배달 서비스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타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타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연방직원 접종 아예 의무화

"연방공무원 · 민간인 계약업자 대상"...확산 억제 · 접종률 제고 기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A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적용 대상은 연방 직원은 물론 연방정부와 계약을 하고 거래하는 일반인도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이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정기 검사 등 제약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의 백신 접종을 아예 의무화해버리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210만 명의 연방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 이미 접종을 의무화한 군에다 계약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1천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접종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6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한 대면 수업

을 위해 학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델타 변이가 번지면서 심각한 재유행을 겪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정부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1만 명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15만 명을 넘었고, 입원환자와 사망자도 지난 겨울철 대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신규 확진과 중증 환자,

사망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내지 않은 이들에게서 발생해 이들의 접종 확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문가 전망치 73만3천 개를 크게 밑돌며 23만5천 개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이는 델타 변이 확산이 고용 시장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민간의 백신 접종 의무화 확대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학교, 직장, 대학과 같은 곳에서 백신 의무화를 권장했고, 민간 영역에서도 접종

의무화를 속속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강화된 조치가 더 많은 기업이 따라오도록 고무시키길 기대한다고 AP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일께부터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모더나 백신의 경우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국의 부스터샷 승인이 임박한 화이자 백신을 활용한 접종부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jbyoo@yna.co.kr

미 신규 실업수당 31만건...2주연속 코로나 이후 최저치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에도 미국의 고용 회복세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29일~9월 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주보다 3만5천 건 감소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2주 연속 갱신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33만5천 건이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2천 건 감소한 278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데이터는 델타 변이가 고용 시장 회복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시장 전망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3만5천 개 증가했다는 지난 3일 노동부 발표가 이런 염려를 키운 바 있다.

그러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월 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이날 결과는 노동시장이 완전한 회복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3월 초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만 건 정도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또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라 많은 학교가 다시 문을 닫을 경우 여성들의 일자리 복귀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irstcircle@yna.co.kr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제보자' 지목된 A씨 "윤석열 · 김웅 명예훼손에 법적대응"

김웅 국회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유포

A씨, 과거 민주당, 국민의당 등을 거쳐 지난해 총선 때 미래통합당 합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A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지난 8일 심야 SNS를 통해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선거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한 것 자체만으로도 송구하다"면서도 "대다수의 내용은 김웅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주변 기자들과 언론상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웅 국회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유포와 함께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는 것,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매우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을 할지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며 "이 내용과 관련해 재차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은 모두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웅 의원은 전날 회견에서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총선 당

시) 선거 관련해 중요 정책에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조작한 경험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 "국민의힘 쪽 캠프가 아닌 다른 데, 황당한 캠프에 들어가 있다" 등의 설명을 내놨는데, A씨를 특정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전 총장도 전날 회견에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이가 없고, 저도 들었다"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A씨에 대해 과거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 등을 거쳐 지난해 총선 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합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책을 맡아 일했다는 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현재 특정 대선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A씨는 그러나 "개별적인 정당생활을 하지 않은 지도 1년 반이 되어가서 다시 인사드린다"며 사실상 지난 총선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주장했다.

minaryo@yna.co.kr



김웅 의원이 질문을 듣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尹 고발 사주' 의혹 정국 변수로...수사 전환 초읽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야권을 통해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대선 정국의 변수로 부상하면서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로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분산돼 혐의에 따라 여러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공익신고 인정한 대검...조작정황 발견 못한 듯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제보를 공익신고로 공식 인정하면서 강제 수사 전환이 임박한 형국이다.

대검의 공익신고 인정이 휴대전화 등 제보 자료에 조작 정황이 없고

언론 제보 이상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내용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 내용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외에 새로운 사실이 없어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를 맡고 있는 대검 감찰3과는 최근 5명 안팎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선거 수사나 포렌식 분석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가 조만간 수사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검이 공식적으로 공익신고로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통과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요건 판단 기간이 90일 내외인 점을 들어 대검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지위에 대한 최종 판단과 불이익한 조치의 원상복귀 처분 권한을 갖는 권익위와 1차 신고접수 기관인 대검의 심사 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특히 제보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석 달 가까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rock@yna.co.kr



**SMART
DENTAL**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BURLINGTON WEEKLY SALE SEP. 10th - SEP. 16th, 2021

H 마트와 함께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YouTube](#) [Instagram](#) [Twitter](#) [Facebook](#) [Pinterest](#)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hmart_ma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Hami Melon 하미멜론 \$1.49 LB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5.99 EA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ILKEN/SOFT/FIRM 14-16 OZ/PKG \$1.29	Fuji Apple 후지사과 PREMIUM QUALITY \$1.49 LB	Korean King Oyster Mushroom 한국산 새송이 버섯 2\$5 10.58 OZ FOR PKG
Ginger 생강 \$1.49 LB	White Cabbage 화이트 양배추 LB \$0.79	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0.79 LB	Kabocha 단호박 \$0.99 LB	ROSHNI Peanut 로시니 땅콩 56 OZ \$4.99 PKG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Eye Round Chunk 장조림용 생홍두깨 LB \$8.99	Fresh Sliced Pork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 LB \$8.99
Fresh 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생 돼지고기 LB \$5.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뼈없는 생 닭 사태 LB \$2.99
Marinat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삼겹살 LB \$6.99	Frozen Spicy Teriyaki Sauce Chicken Skewers 냉동 데리야끼 / 불닭꼬치 닭꼬치 10-11 OZ/PKG \$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Bok Kum Anchovy (Medium) 통통배 묶음멸치 5 OZ/PKG \$5.99	Frozen Cooked Head-on Coldwater Shrimp 머리있는 단새우 90-120'S/LB \$3.99
SUHYUP Frozen Cut Pollock 수협 냉동 갈돔 코다리 17.63 OZ/PKG \$5.99	TONGTONGBAY Dried Squid (Sliced Red) 통통배 홍진미 오징어채 16 OZ/PKG \$17.99
SUHYUP Frozen Cleaned Squid 수협 냉동 속죽 오징어 12.34 OZ/PKG \$6.99	HOT SALE Fresh Salmon Steak 생 연어 스테이크 LB \$7.99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 판매

SMART CARD MEMBER ONLY

KYONG GI ME Medium Grain Rice 경기미 40 LB \$29.99	HAIO Yellow Croaker 해오름 황금빛 굴비 2.5 LB \$14.99
HAIO Citron/Honey Ginger Tea 해오름 유자/생강차 2.2 LB \$5.99	HAIOREUM Dumpling 해오름 만두 KIMCHI/VEG./FRIED/2.65 LB \$5.99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쌀 \$12.99 15 LB	PALDO Bibim Men 팔도 비빔면 \$3.99 4.58 OZ X 5 EA/PKG	SHIRAKIKU 100% Pure Sesame Oil 시라키쿠 참기름 56 FL OZ \$12.99	HAIO Hot Pepper Paste with Vinegar 해오름 초고추장 17.63 FL OZ \$2.99	THREE CRAB Fish Sauce 삼계 순멸치 액젓 24 FL OZ \$4.99
ARIZONA FARM Honey Powder 아리조나팜 허니 파우더 1 LB 2\$5 FOR	HOUSE FOODS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MILD/MED. HOT/HOT/8.11 OZ \$2.99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4.99	CHOUNGSOO Oriental Style Noodle 청수 물냉면 / 비빔냉면 MUL/BIBIM 25.4 OZ \$3.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9.99 16.9 FL OZ X 6 EA /PKG
NIPPONHAM Karaage Chicken 니폰햄 카라아게 치킨 12 OZ \$5.99	MAEIL Biofeel Yogurt 매일 요구르트 63 mL X 25 EA /PKG \$3.99	THE GLASS Container 더글라스 세이브팩 \$1.99 ROUND 170 mL/EA < \$2.99	LG Elastine Silk Repair Perfect Shining Shampoo/Conditioner 550 mL/EA LG 엘라스틴 실크리페어 퍼펙트 사이닝샴푸/컨디셔너 \$8.99	Lavender Comforter 라벤더 누빔 이불 200 CM X 230 CM/EA \$69.99 \$99.99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사장 나 원 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 제 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OUR AGENTS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 성 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 현 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 준 군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최 은 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 영 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차 민 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김 원 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 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주 희 정
617.831.6999
jessie@bostonpremierrealty.com



주 승 원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최 승 진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렌트전문 팀장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 수 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WWW.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
 Mr. M. Malden, MA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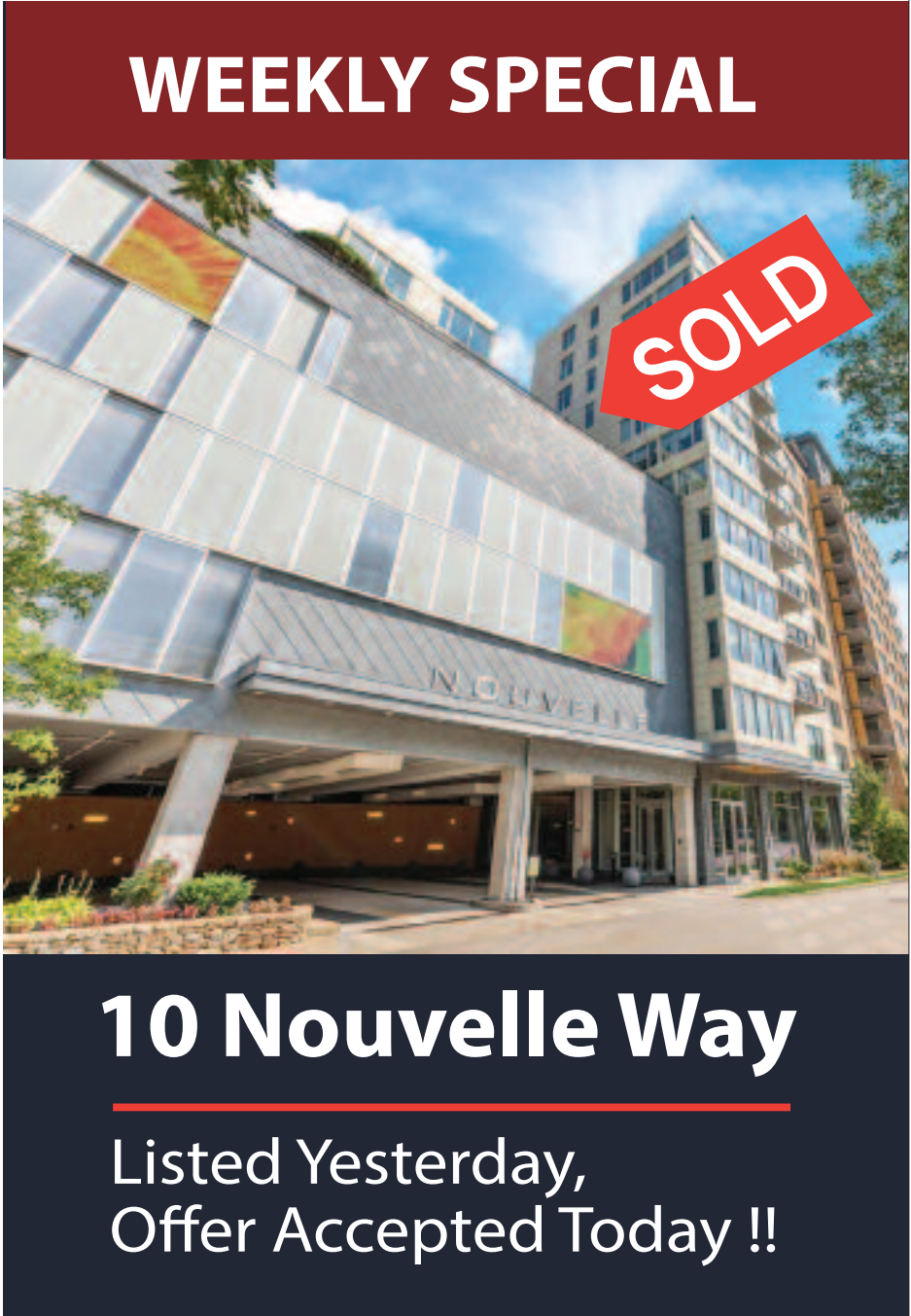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

KCBMC

보스턴 지회 창립식

Boston Chapter Inaugural Ceremony

Sat. 09.25.2021 03:00 PM

설교: 최진용 목사님

뉴잉글랜드지역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보스톤 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Boston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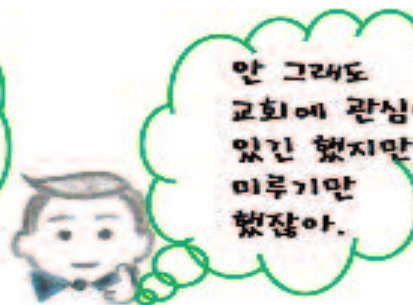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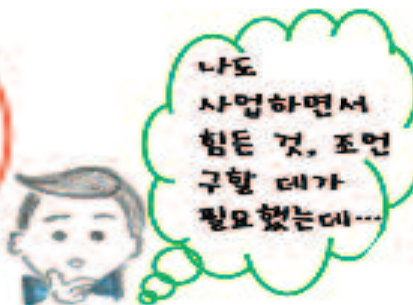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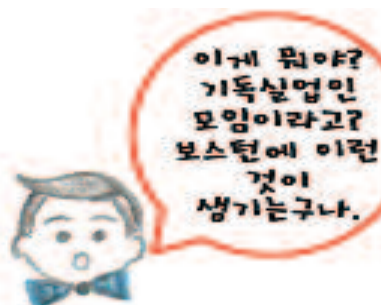
KCBMCBOSTON@gmail.com

RSVP: 781-640-9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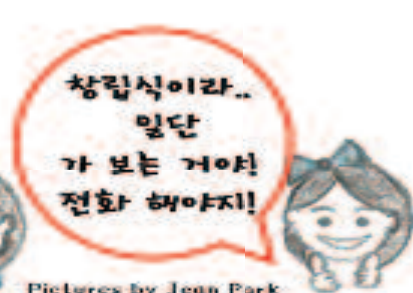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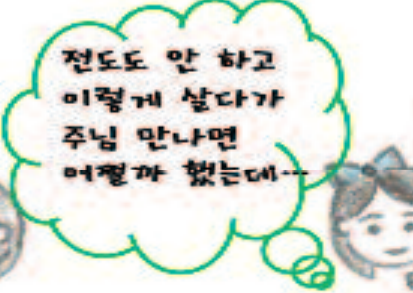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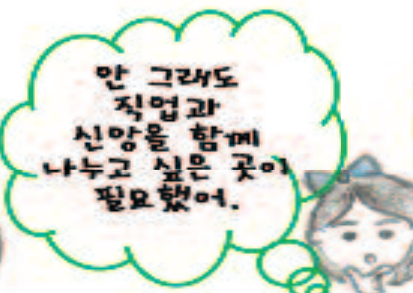


CBMC

Korean CBMC of North America



Pictures by Jean Park



Pictures by Jean Park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세요, 켈리 김입니다. 개인주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여러 상황 때문에 개인주택 소유의 꿈을 접기도 합니다. 20년간 겪어온 많은 모기지 대출 경험으로 완벽한 대출매칭을 설계해 드립니다.

현금 인출

모기지 재 융자

후회없는 최상의 결과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사전 승인

상담 및 신속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617.733.5014

Testimonial

저는 이분 아니었으면 집을 장만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집 장만. 저희 담당 리얼터 분이 이런분은 없다면서 소개해준 켈리님 정말 저는 정말 행운아였습니다. 급하게 시작한 상태이고 준비가 미약한 제 상태에서 괜찮은 집을 찾았지만 주변에서 안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 상황을 맞춰서 시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켈리님을 보고 만나지도 않았고 느껴지는 강한 믿음!! 이분은 정말 이분야에서 정말 최고이신것 같습니다. 미국말이 더 편하시분인데도 한국말로 자세히 제가 알 수 있도록 언제나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로징할때 저보다 더 기뻐해주시고 축하해주신 켈리님!!! 저희 가족들은 만나면 이분의 알게 된걸 큰 행운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의 권유로 집을 살준비도 못한채 최은경님을 소개를 받고 집을 장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무도것 모르고 시작한 저한테 1부터 10까지 자세한 설명으로 집을 살때 어떻게 해야하면 계속 연락해주시면서 많은도움을 주셨습니다. 안되면 하는수 없다고 생각한 저한테 포기하면 안된다고 말씀해주시고 많은것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할때도 같이 해주시고 정말 당신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가족들은 이분하고 집이면 사업장이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알게된 소중한 인연 끝까지 이분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hris Choi (Boston Premier Realty, Phone 781-690-4389)



켈리 김 Licensed in MA, NH, RI, FL, NJ
Kellie Kim Thielen

주택대출 전문가

nmls #2027241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radius
financial group inc.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 식당 온라인 오더와 온라인 페이먼트를 한자리에서 해결
-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온라인 예약과 온라인 페이먼트를 컴퓨터로
- 다양한 옵션을 완비한 디펜더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살롱
온라인 음식 주문과 지불 epipay™	온라인 예약 관리 epiday™
온라인 매장 관리	온라인 매장 관리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GIFT CARD 프로그램	GIFT CARD 프로그램
종업원 관리	종업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Dependable Computer is an authorized independent reseller of United POS Solutions, Inc."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 (Dabul) Parish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j16Zd7>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령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피루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장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6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골프 레슨

US GTF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최성조 프로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Master Golf Professional

857.600.6755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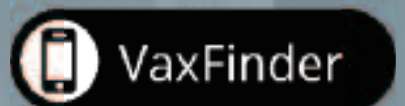
Tel. 508-740-9188

백신을 접종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무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장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세요
MASS.GOV/COVIDVACCINE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Eastern Bank

JOIN US FOR GOOD



BNI 2021 FALL ONLINE CLASS

환경, 인종, 그리고 신앙

9/13 – 10/11 매주 월요일
저녁 7:30-9:00



이태후 목사
North Philly
Community Church

- 1주차: 이민 역사 속 한인 이민자의 정체성
2주차: Black Lives Matter 운동과 한인 이민자
3주차: 자연에서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
4주차: 창조에서 부활로: 성찬, 십자가, 부활



김현우 목사
에모리 대학교
성서학 강사

5주차: 패널 토론 “함께 만들어갈 미래”



등록링크: <https://forms.gle/Sk5Y4q9Z2EUfs9aF9>
등록 문의: BNI 사무처장(김수영 목사)bosnehins@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50) 상속 준비의 필수

상속준비를 생각하는가장큰이유는남은 자산이 상속법원(Probate)을 통해서 분배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법원에 의한 자산분배는 큰 비용과 많은 시간 그리고 절차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산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정확하게 설정만 되어있다면 상속법원을 통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을 함께 한 후 한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면 슬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남아있는 배우자, 특히 아내가 남편이 관리했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마음 상태가 본의 아니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어지게 할 수 있기에 주변의 친지들 말을 듣고 상속 준비로 막연히 트러스트(Trust)를 고려해 본다. 트러스트를 형성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속준비를 위해서 고려해야해야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 역시 다를 수 있기에 본인에게 적

합한 상속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칼럼은 대부분 가정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큰 비용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상속수혜자(Beneficiary Designation): 상속계획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언장, 트러스트, 등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자산의 상속수혜자를 설정하는 것이다.

은퇴하면 생활비 대부분이 은퇴자산(IRA, 401k, 403B, TSP, 등)에서 나오므로 재정적으로 커다란 목돈은 금융자산일 것이다. 상속수혜자가 설정되어 있으면 금융자산은 상속법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상속된다. 유언장에 어떻게 명시되었건 상관없이 상속수혜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자산이 먼저 분배된다. 상속수혜자 설정이 유언장을 우선(Supersede)하기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계좌는 TOD(Transfer On Death) 작성으로 상속수혜자를 설정하면 된다. 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남은 배우자를 우선(Pri-mary) 설정하고 자녀는 2차(Secondary)로 설정하면 돌아가신 분의 자산이 바로 상속된다.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상속수혜자가 설정되면 대부분 남아있는 자산은 부동산(Single Family Home)일 것이다.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부동산 역시 상속수혜자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TOD Deed라고 불리며 미국에서 30여 개의 주(State)에서 트러스트를 형성하지 않고 상속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우리 한인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TOD Deed를 형성할 수 있다.

미국 5개 주(Florida, Michigan, Texas, Vermont, and West Virginia)는 Lady Bird Deed로 상속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법은 TOD Deed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Texas 주는 TOD Deed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선택하면 된다.

재정이나 의료 결정 변호사(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병환이나 치매 초기로 재정적인 결정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자동차 사고 등으로 생명은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을 때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다.

상속계획을 말할 때 상속세금을 염려한다. 2021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 \$11.7 million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일반인 대부분이 연방정부 상속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다.

상속계획을 오래전에 형성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은퇴한 후 다른 주 정부(State)로 이사하면 현재 사는 주의 상속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의 상속세가 연방정부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상속수혜자 선정이 상속 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Elder Law)의 자세한 상담과 조언을 추천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2세 풍월주風月主 양도공良圖公(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김양도의 부모는 모종공毛宗公과 양명공주良明公主이다. 모종의 부모는 11세 풍월주 하종과 미모낭주이며 하종의 부모는 6세 풍월주 세종과 미실이다. 세종의 부모는 태종(이사부)과 지소只召태후(법흥왕의 딸, 진흥왕의 어머니)이다. 하종과 미모는 딸 유모와 영모, 아들 모종을 낳았다. 차녀 영모는 김유신의 첫째 부인으로 딸 진광, 신광, 작광, 영광 넷과 아들 삼광을 낳았다. 김유신은 나이 60에 김춘추와 문명왕후(김유신의 동생, 문희)의 딸 지소智昭를 아내로 맞았다.

양도의 어머니 양명공주의 부모는 제26대 진평왕과 보명공주이다. 진평왕은 진흥왕의 장손이다. 진평왕의 아버지 동륜태자는 진흥왕의 후궁 보명공주의 치맛폭을 풀려고 월담했다가 개에게 물려서 일찍 죽으면서 왕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보명공주의 부모는 구진과 지소只召태후인데, 구진은 지소의 침신이였다. 보명은 미실, 옥리, 월화, 금진 등과 함께 진흥왕의 후궁이었는데, 진흥왕 사망 후 진지왕을 이어 즉위한 진평왕의 (미실과 함께) 좌우후가 되어 어린 진평왕을 색도色道했다. 그 와중에 양명공주가 태어났다. 양명은 일찍이 16세 풍월주 보종공(부모는 7세 풍월주 설원랑과 미실)과 결혼하여 딸 보라와 보랑을 낳

았다. (보라는 김춘추의 첫째 부인으로 딸 고타소를 낳고 일찍 죽었다. 고타소가 대야성 성주 김품석의 부인으로, 642년 백제 장군 윤충에 의해 성이 함락되자 가족이 함께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그림을 잘 그렸기에(잘 그릴 것이라고 예견했기에, 아니면 그림을 그리다가 색사를 하여 태어난 아들이기에), 이름이 良圖라고 지어진 김양도의 태몽과 출생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609년 어느날, 설보종은 연하의 조카 모종을 불러 함께 시화詩畵를 즐기다 보니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한편 부인 양명공주는 초저녁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 꿈에 난새鸞의 상서로움을 얻고 길조吉兆라고 여겨 남편 보종과 조카 모종이 함께 있는 방으로 들어와 귀뜸을 하고 보종의 소매를 끌어당겼다. 이에 보종은 “길조가 어찌 홀로 나에게만 있겠는가?” 하면서 그만 누워서 잠을 청했다. 당시 그들에게는 보라와 보랑 두 딸이 있었다. 하지만 보종은 색사를 즐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부인 양명이 조카 모종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잠결에 뒤척이는 척하면서 먹물이 가득 담긴 연지硯池(벼루)을 일부러 차서 먹물을 쏟았다. 그 먹물은 모종의 옷을 적셨고, 옷을 갈아 입는 과정에서 모종과 양명은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양명은 이듬해 610년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태어나자 보종은 “그림은 아우님(弟公

)의 아들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良圖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가 22세 풍월주 김양도이다.

김양도에 관한 기록은 화랑세기에도 많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많이 나온다. 양도는 김선품이 21세 풍월주의 위에 있을 때 그의 부제로 화랑도를 통솔하였다. 나이는 한살 밖에 어리지 않았지만 풍월주 선품을 섬기는 데는 충심을 다하여 순종하였다. 그는 12세 무렵 17세 풍월주(621 ~ 626년) 김영장에 의해 화랑도에 입문하였다. 그 후 김흠순이 19세 풍월주(629 ~ 632년)를 역임할 때는 부제인 예원공에게 속하여 화랑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무예 수련과 심신도야를 하고 있었다. 20세 풍월주는 김예원이 역임하였고, 21세 풍월주는 김선품이 이어 받았다. 김양도는 선품공 아래서 부제를 지내다가 637년 드디어 22세 풍월주의 위에 올랐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27.8세에 풍월주에 오른 김양도는 전횡을 많이 한다고 낭도들로 부터 상선에 이르기까지 호평보다는 비난을 더 받기도 했지만, 그는 그간 이어져온 구습과 낭정의 폐단을 많이 개혁하였다. 문무를 완벽하게 겸비한 김양도는 김유신 휘하의 장군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쳐서 삼국을 통일하는데 크나큰 공을 세웠다. 아울러 그는 문장과 외교술이 뛰어났기에 생애 여섯 번이나 당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사실 그는 여섯 번째 사행에서는 돌아오지 못하고 ‘불귀의 객

’이 되고 말았다. 그는 나당전쟁의 해명을 위해 669년 김흠순과 함께 당나라에 파견되었다가 당 고종高宗에 의해 억류되어 하옥되었다. 이듬해 당은 김흠순을 풀어주어 귀국을 하였으나 김양도는 계속 억류되었고, 그곳에서 옥사하였다(670년). 화랑세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그의 풍월주 활약상을 보면,

[22세 양도공은 보종공의 아들이다. 선품공보다 한 살이 적었다. 처음 염장공을 따라 화랑이 되었다. 나이 겨우 12살에 상하의 예를 알았다. 흠순공 때에 이르러 예원공에게 속하도록 명했다. 선품공이 풍월주가 되자, 예원공의 명으로 부제가 되어 선품공을 섬겼는데 힘을 다하여 받들고 순종하였다. 풍월주가 되자 전횡이 많아 당시 사람 중에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공의 성품은 사람 섬기기를 잘하고 일의 추이에 밝았다. 부처를 숭상하는 것을 좋아했고 공명功名을 중히 여겼다. 문장을 잘했고 격검에 능했다. 늘 강개하여 천하를 말하니, 마치 한 세대의 영웅과 같았다. 상선들에게 몸을 굽혀 존경을 표할 때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재물을 떠는 것 같아서 뒷사람들의 기분을 다 맞추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가을 (Fall Market)

이제 노동절 휴가를 마치고 정말 가을에 접어들었다. 항상 보스턴은 학기가 시작하고 나면 좀 안정이 되는 듯 하다.
항상 그러하듯이 집 매매는 현재 진행형이다. 직장 이동이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동인구는 항상 있다. 지난 해부터 시작한 팬데믹에

도 불구하고 Housing Market은 “미쳤다”라는 단어가 딱 맞을 만큼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 만큼 집을 내 놓는 분들이 없다는 거다. 그리고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485,000 집이 하나

나왔다.
Townhouse 에 2016년에 지은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나온지 하루만에 가격은 \$508,000, 오피 마 감 1시간전에 가격은 \$550,000까지 올라 갔고 가격은 \$553,000에 팔렸다. 바이어가 용자를 알아 보았는데 조금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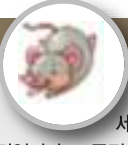
인트를 내고 2% fixed rate에 용자를 얻었고 이분은 잘 샀다고 좋아하셨다.
내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집을 4만불 싸게 사는 것 보다 용자를 1% 낮게 얻는 게 더 이익이다. 직장이 바뀌면 이사는 해야 한다. 이런 미친 마켓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은 아마도 바이어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준다고 표현하고 싶다.
거기다가 낮은 용자율은 정말 환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아직도 집을 사고 싶어 하신다면 이 가을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9월 12일 - 9월 18일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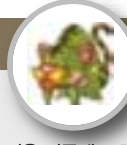
쥐띠 | 한 계단씩 차근차근

●운수: 성공으로 올라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계단만 있다 생각하고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금전: 길게 끌지 말아야 합니다.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애정: 평소 때보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개나 중매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3, 17일 길일. 16, 18일 주의.



소띠 | 순간만 잘 참고 넘어가면

●운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진지한 자세로 처세를 해야 하겠습니까. ●금전: 당장은 자신이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애정: 짜증나게 하고 다들 만한 일이 있더라도 순간만 잘 참고 넘어가면 큰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3, 18일 길일. 14, 1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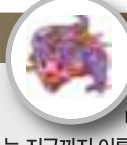
범띠 | 끈기가 있어야

●운수: 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세요. ●금전: 코앞만 생각하면 적은 이득에 그치지 않고 길게 내다보고 하면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끈기가 있어야 금전상태도 좋아지고 여러 면에서 호전이 됩니다. ●애정: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6, 17일 길일. 12,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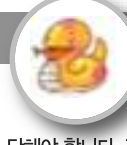
토끼띠 | 만족도가 높으니

●운수: 전문가나 경험자와 상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만족도가 높으니 흐뭇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금전: 맘 흘려서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보답해줄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 만큼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애정: 연애했 상대를 만나 사랑의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잊혀져가던 설렘이나 순수한 마음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2, 15일 길일. 13, 1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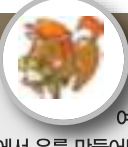
용띠 | 정확하게 말해야

●운수: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끌어들이는 사람이 도리어 일을 더디게 하는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과욕을 부리다가는 지금까지 이룬 것마저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가야 합니다. ●애정: 무조건 참고 지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상대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3, 15일 길일. 12, 1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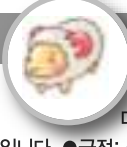
뱀띠 |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운수: 점점 자신감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용기내야 할 것입니다. ●금전: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다가 손해만 부릅니다. ●애정: 가족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일수도 있지만 가족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가족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4, 18일 길일. 12, 1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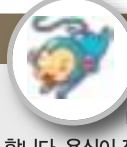
말띠 |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운수: 주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여건에서 활동하게 도움 주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금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롭게 도약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도 잡게 되겠습니다. ●애정: 자식 같은 끌림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있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5,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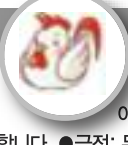
양띠 | 철저한 확인이 필요

●운수: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금전: 원가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합니다. 더 나은 조건이나 가격대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머리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포기해도 마음으로는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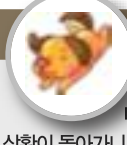
원숭이띠 | 눈에 띄기 쉬운

●운수: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까. ●금전: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욕심이 점점 커지면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애정: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때입니다. 특별한 사이가 아니어도 같이 다니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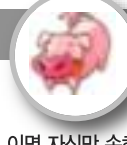
닭띠 | 하면 된다는 신념과

●운수: 막힌 것 같고 답답하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희망의 길이 열립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금전: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의욕과 반드시 이루겠다는 성취욕이 강해 집니다. 수입과 관련해서 좋은 조건의 일이 생기겠습니다. ●애정: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4,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개띠 | 서남쪽으로 가는 것이

●운수: 집이나 사업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다면 서남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니 실수를 처리해 될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애정: 사랑의 계절에 춘삼월이 왔으니 웃음 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이 상대에게 잘 전달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5, 16일 길일. 14, 17일 주의.



돼지띠 |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운수: 예감이나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느낌이 오는 일을 하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금전: 망설이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이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애정: 오해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 살다보면 종종 오해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3, 16일 길일. 15, 18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시맨 풀타임, 파트타임 구합니다.
T. 508-655-3951, 978-494-2712

내틱물에 있는 옷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영어 가능하신분.
T. 617-543-9656(John)

브루클라인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
화. 목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T. 410-215-3301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BTS '버터', 새 리믹스 힘입어 한달만에 빌보드 1위 재탈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버터'가 미국 래퍼 메건 더 스탈리언이 피쳐링한 리믹스 버전 출시에 힘입어 한 달 만에 빌보드 정상에 복귀했다.

빌보드는 지난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7위를 차지했던 '버터'가 이번 주 1위로 뛰어올랐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버터'가 핫 100 1위를 기록한 것은 통산 10주째다.

올해 5월 21일 발표된 '버터'는 BTS의 또 다른 곡 '퍼미션 투 댄스'에 한 주간 1위를 넘겨준 것을 제외하고 6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핫 100을 장기 지배했다.

통산 9주간 1위를 차지하며 올해 최장 기간 핫 100 1위에 머무른 곡으로 기록됐다. 이번 1위 복귀로 해당 기록을 한

주 연장하게 됐다.

이후 최근 4주간도 4위→7위→8위→7위를 기록하며 10위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인기를 유지했다.

핫 100 차트의 63년 역사에서 10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곡은 '버터'를 비롯해 40곡뿐이다. 지난해 1~3월 총 11주간 정상을 지킨 로디 리치의 '더 박스' 이후 최장 기록이기도 하다.

'버터'의 1위 반등은 스탈리언 피쳐링 버전 출시로 새롭게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BTS는 지난달 27일 스탈리언의 랩과 시그니처 사운드, 애드리브 등이 더해진 '버터' 새 리믹스를 발매했다.

'버터' 원곡은 청량한 사운드에 BTS 멤버들의 다채로운 보컬, 랩을 느낄 수 있다면 리믹스 버전은 풍성한 성량의 스탈리언이 가세해 색깔



이 더욱 풍부해졌다.

스탈리언은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3관왕을 차지한 미국의 차세대 여성 래퍼다.

새 리믹스 버전 발매 첫 주(8월 27일~9월 2일)에 '버터'의 다운로드 판매량은 전주보다 108% 증가한 14만3천 건

을 기록했다. 스트리밍 수치(1천70만 회)도 110% 급증했다.

'버터'는 디지털 음원 판매량으로 순위를 매기는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통산 14주간 1위를 지켰다. '스트리밍 송즈' 차트에는 35위로 재진입했다.

스타PD 김태호 MBC 퇴사... "무모한 불나방 될지라도 새로운 도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나영석 CJ ENM PD와 더불어 양대 스타에 능 PD로 불리는 김태호(46) PD가 20년 만에 MBC를 떠난다.

MBC는 7일 "김 PD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어 "김 PD는 2001년 1월 MBC에 입사해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등을 연출하며 MBC 예능 프로그램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김 PD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

음을 전한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는 김 PD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만 20년을 MBC 예능본부 PD로 살아오면서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날이 많았다"면서도 "매주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뭐라도 찍자!' 하며 늘 새로움을 강조해왔지만 '나는 정작 무슨 변화를 꾀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점점 머릿속을 채워갔다"고 퇴사 배경을 밝혔다.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공과대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

"저자는 인간을 지구를 여행하는 나그네라고 부른다.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여행할 기회는 단 한번뿐이다.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장비도, 동반자도, 목적지도 아니다. 단지 즐거움 마음가짐 하나면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가벼운 정신과 성실한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적당히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경쾌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이 책의 철학이자 믿음이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돌아보는 인생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지구 여행자가 될 것을 권하고 있다.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는 얹히고설켜 인생의 매듭을 풀고 피곤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소박한 스토리와 담백한 인생철학, 그리고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융합해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집 앞에 피고 지는 꽃을 감상하는 것,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따라 걸어보는 것 등 느리게, 단순하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라 말하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성공 일색

의 인생 노선을 내려놓기를 제안한다."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들이다. 내게도 일어났고 일어날 그리고 일어나는 일 말이다. 삶에서의 특별함이란 이처럼 평범한 일상 이리라.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서 남들은 매일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도 밋밋한 하루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책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오늘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일상의 주인공들이다. '호~ 하고 토해낸 숨을 '흡~ 하고 들어마시고 뱉어내지 못한다면 어찌 저 괴란 하늘을 볼 수 있겠으며, 솔솔한 바람을 맞을 수 있겠는가.

책의 저자 쑤쑤[素素]는 베스트셀러 작가, 마음의 멘토, 높은 연봉의 직장을 그만두고 베이징 시산[西山]에서 은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마음의 성장과 심리 치유, 힐링에 관한 글을 전문적으로 쓰고 있다. 가벼우면서도 부드럽게 톡톡 튀는 문체로 다양한 연령, 다양한 국가의 독자를 매료시킨

그녀의 두 번째 작품이 또다시 한국에 선을 보인다. 대표 저서로는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治愈系心理學]』, 『인생, 너무 진지할 필요는 없어[人生何必太較?]』 등이 있다.

책 안의 제목들을 나누고 싶다. 혹여 이 가을 시간이 허락된다면 가볍게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나누는 것이다. 책의 Prologue "우리는 모두 지구 여행자이다" 참으로 마음에 와 닿았다. 첫 번째 Chaptr에서 "삶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것이다" 현대인이 피곤하게 사는 이유는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꿈에서처럼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을뿐더러 피곤해지지 않을 것이다. 꿈이 실현되는 즐거움만 느끼고 꿈이 깨지는 고통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Chapter 1 삶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것이다, Chapter 2 마음속 빈 곳을 채우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다, Chapter 3

마음을 열면 행복하고 마음을 닫으면 불행하다, Chapter 4 느리게 더 느리게, 삶의 향기를 맡다, Chapter 5 단순한 삶이 가장 근사하다, Chapter 6 돈과 명예는 자유로워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Chapter 7 인생... 책 제목들이 편안하고 단순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바쁜 마음을 빠른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이 피곤해지는 것이다.

단순한 삶이 가장 근사하다. '빠기'는 이미 하나의 인생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도 현대인은 쉽게 걸음을 멈추지 못한다. 그러나 '더하기'를 통해 Good도 얻고 Better도 얻지만, Best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한다. 빠기의 생각 전환을 통해 삶을 단순화해보는 건 어떨까? 물질 생활에 대한 인간의 요구가 줄어들면 정신생활의 자유로움은 좀 더 커질 것이다. 빠기는 삶을 단순화하여 우리를 행복한 미래로 이끈다. 편안하고 마음에 와 닿았던 책이라 이 가을 함께 나누고 싶어 책 이야기를 옮겨보았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복덕방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사까지 환히 꿰고 있었다.

옛적에 들던 말이다. 싸움은 말려야 하고 흥정은 붙인다. 그럴적에 복덕방은 거래가 성사되면 거간비居間費인 복비福費를 받았다. 복비는 담배값 만한 구전口錢이라고도 했다. 복덕방엔 주로 노인분들이 앉아 있었다. 오죽하면 복덕방영감님이라 했을 텐가. 영감님이야 오고 가는 손님을 기다리기에 지루했을텐데, 장기를 두고 있던 장면도 자주 봤던 기억이다. 이사철이 아닌 한가할 적이다.

이사가고 이사오는 계절은 봄이다. 한국이라면 삼륜차가 동원될 수도 있다. 정호승 시인이다.

아직 봄은 끝나지 않았는데, 이삿짐 트럭에 실려가는 힘없는 나무 뒤를 까치들이 따라간다

아슬아슬 아직 까치집이 남아있는 나무 뒤를 울지도 않고 (정호승, 이사 중에서)

한국 고관대작들은 모두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청문회에선 그제 제법 큰 이슈가 된다. 그 양반들은 복도 많고 덕도 큰가 한다.

이번엔 유망한 국회의원이 걸려들었다. 자진사퇴했다던가. 듣는 나야 입맛은 쓴데, 아쉬운감이 없지 않다.

첨언) 모방작은 김환기 화백을 그대로 옮겨 그렸다. 복덕방노인 양반의 한가로운 모습이다. 매기買氣는 없어 보인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사야 5:8)



작은 탁상용 달력이다. 내 모교 것인데, 8월달 사진이 눈길을 잡았다. 우리집과 비슷한 듯 보였기 때문이다. 사진속엔 크지 않은 주택과 잔디밭이 있고, 푸르른 나무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주택은 총장공관으로 쓰였던 집인데, 뉴잉글랜드식 모델이라 해야 할까. 이름하여 Cape Cod 스타일처럼 보였던 거다.

부동산不動產과 동산動產. 일본사람들이 만든 말일 게다. 조금 상업시간에 배웠다면, 내겐 도무지 이해불가였다. 집과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현금과 주식파워를 동산이라고는 건 한참후에 알았다.

지난 봄인가 보다. 보스톤코리아에 실렸 다. 보스톤 지역에서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다고 전했다. 과열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나야 할 덕이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다. 덕분에 부동산 중개인들은 바쁠것인가. 예전엔 복덕방이라 불렀다.

복덕방이란 말이 재미있다. 생기복덕生氣福德에서 유래 한다고 했다. 복과 덕이 생긴다는 말인가. 하긴 집이나 건물엔 복이 들어야 마땅하다. 그럴적에 집이나 방을 구하는데 복덕방을 찾게 먼저였다. 복과 덕을 데려다 줄테니 말이다. 복덕방은 동네 대소

Michelle
FOR MAYOR



9월 14일 미셸우에 투표하세요

그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할 후보입니다

- 혐오범죄와 맞서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합니다.
-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관료행정을 줄이겠습니다.

(857) 220-7542

MICHELLEFORBOSTON.COM

PAID FOR BY THE WU COMMITTEE

 @wutrain

 /michelleforboston

 @wutrain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대세는 '홈 트레이닝'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여파로, 홈트레이닝 인구 증가
잘못된 자세,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관절 통증·손상 주의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 정확한 자세 숙지하고 강도 조절해야



자료 제공 : 헤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증가 중인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척추관절센터 윤 형조 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재택근무, 외부 활동 자제 등 다시 ‘집콕’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정신건강과 체중 증가 등 신체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야외 운동과 헬스장 대신 집에서 운동하는 ‘홈(홈트레이닝)’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국내 한 홈트레이닝 전문 서비스 업체 발표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7.4배 증가했고, 이용자 수는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예방을 위해 외부 접촉 없이 체력과 면역력 등 건강을 챙기려는 운동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적절한 준비 동작 없이 단순히 유튜브 영상을 따라 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정확한 동작을 숙지한 후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스쿼트’ 자세로 인한 무릎 연골

손상, 조기 퇴행성 관절염 위험

한정된 공간에서 도구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작이 ‘스쿼트’ 자세다. 다리와 엉덩이 등 하체 근력 발달 및 혈액순환을 개선해 전신 건강에 좋은 운동이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반복 시행할 경우, 허리와 무릎 일부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며 통증과 부상의 생길 수 있다.

몸의 하중이 앞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충격으로 ‘반월상 연골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강이와 대퇴부 사이 관절에 위치한 ‘반월상 연골관’은 뼈 사이 마찰과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과 함께 무릎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하지만, 매우 연한 조직으로 강한 외부 충격과 관절이 과도하게 비틀릴 때 손상되기 쉽다.

‘반월상 연골관’이 손상되면 통증, 부기와 함께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월상 연골관’ 손상을 방지하려면 무릎 연골까지 닿으면서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비교적 경미한 손상은 약물이나 주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고, 연골관이 심하게 찢어지면서 주변 조직을 자극하는 등 심한 통증이 나타날 경우 관절경을 이용한 절제술이

나 봉합술을 통해 치료한다.

불안정성 높은 ‘어깨’ 관절, 무리하면 근육·인대 손상

어깨 관절은 가동 범위가 넓지만, 다른 관절에 비해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되기 쉽다. 준비운동 없이 갑자기 고중량의 바벨이나 덤벨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굳어 있던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세로 무게 중심이 무너지면 어깨 관절과 인대 손상의 위험이 커진다.

무리한 어깨 운동 시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어깨충돌증후군’이 있다. 과도한 어깨 관절 사용으로 견봉(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뼈)과 회전근(어깨 회전운동 및 안정성 유지하는 근육)이 서로 충돌하며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통증과 함께 ‘뚝뚝’ 소리가 나거나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야간통으로 잠을 못 이루기도 한다. 증상을 방지하려면 견봉이 변형되어 주변 조직까지 손상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가벼운 증상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요법 또는 주사치료 등으로 충분히 호전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주변 조직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수술 치료를 고려한다. 대부분 절개 없이 관절경

을 이용해 견봉 밑의 골극이나 모양을 다듬어 주는 성형술을 시행한다.

홈 시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전 스트레칭 등 가벼운 동작으로 몸에 열을 내고, 굳어 있는 관절을 풀어준 다음, 전문가 설명을 잘 듣고 어느 부위에 힘을 주고, 무게 중심을 두는지 등 정확한 운동법을 숙지한 후 반복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관절 상태, 체력을 고려해 중량 및 운동 강도를 선택하며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한다.

“코로나 시대, 대세는 홈트레이닝”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 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보스톤 전망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경교의 유래

불국사 십자가

서기 1956년 신라의 고도 불국사 경내에서 정방형의 돌십자가 한점이 수습되었다. 이는 송실대 한국 기독교 박물관이 소장한 "경교 돌십자가"로 박물관 도록에는 1956년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유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고고학을 전공한 최병헌 관장은 "김양선(1907~1970) 목사 생전에 본인으로부터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 밑에서 돌십자기를 발견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하였다.

돌은 화강암으로 평면은 십자가형이고 돌 십자기는 가로 23.5cm, 세로 25cm, 두께 6cm로 초기 그리스 십자가 형태였다.

그는 이 십자가상이 신라시대때 기독교가 전래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부터 1,300년전에 기독교 유물이 발견되었고 유물을 발견한 장소가 불교의 성지였던 불국사 경내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가장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1950년대 경주에서 출토되었다는 "성모 마리아상"이다. 유물을 자세히 보면 화관으로 머리를 장식한 여인이 손을 입에 물고 있는 어린아이를 무릎 위에 안고 있는 형상을 볼 수 있다.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이 박물관측의 해석이었다.

신라 성모상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정수일 한국 문명교류 연구소장처럼 "고대 기독교 전래의 유력한 증거물"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상당수의 문화재 전문가들은 기독교 유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강우방 전 이화여대 교수는 성모상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고, 조유전 경기문화재 연구원은 정확한 발굴 기록이 없는 유물로 신라시대의 것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부처와 십자기를 함께 모시는 발해종교

한때 발해의 수도였던 동경용원부(지금의 훈춘)에서 석가모니를 본존불로 모신 대웅전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불로 봉안되었다.

불상의 한가운데에 부처가 가부좌하고 있고 좌우에 협시보살 두명이 서 있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부처의 왼쪽에 있는 협시보살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부처의 가슴 가운데에는 십자가 문양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와 만주에 산재해 있는 많은 삼존불상 가운데 부처와 보살이 십자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발해의 종교가 다양한 교류를 통해 그들만의 색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발해에 불교와 함께 동방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 발해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삼존불상의 경우에는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을 지배하던 시기에 불상 자체를 아예 일본으로 반출해 버렸다고 한다.

현재 훈춘의 박물관에는 삼존상의 실체는 없고 사진만 진열되어 있다고 한다.

압록강 맞은편 건너에 있는 남만주 안산부근에는 11세기 요나라(거란) 성종 때의 유물인 7개의 기와 십자가와 동방박사 아기 예수 경배그림이 조각된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문헌에 의하면 당시 안산지역에는 상당수의 동방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만주 서쪽 무순에는 수백점의 십자가가 나왔다고 한다.

연해주 발해 절터에서 발견한 십자가

발해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련의 고고학자 샵쿠노프(1930~2001)는 1960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00km 떨어진 우수리스크 근처 고려인 마을이었던 "차피고우" 일대에서 발해 유적을 조사했다. 그가 선택한 발굴지는 아브리코스라고 불리는 언덕 위의 발해 절터였다. 끊임없이 나오는 기왓장 사이에서 자그마한 진흙 조각을 발견했다. 그냥 흙덩이로 착각할 만한 진흙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니 십자가였다. 그것도 보통 십자가가 아닌 끝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특이한 형태였다.

바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발해로 유입된 기독교 일파인 네스토리우스의 십자가였다. 흔히 "시리아 십자가"라고도 하는 끝이 넓어지는 십자가는 주로 아시아 기독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 십자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네스토리우스교를 대표한다고 한다. 샵쿠노프의 놀라운 발견은 1968년에 발간된 그의 박사논문에서 소련학계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냉전시대에 그의 발견은 널리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그의 발해 유적 발굴이 확인되며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경교의 유래

한때 기독교의 역사에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여러 번 있었다. 그중 하나가 Nestorius의 과거 이야기였다. Nestorius는 서기 380년에 수리아 안티오크(Antiok)에서 출생하였다. 48세 때인 428년 당시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임명되었다. 당시 기독교는 신학적으로 키릴로스 주교의 알렉산드리아파와 네스토리우스의 안티오크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쟁점의 포인트로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지만 그 역시 인간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반대세력인 알렉산드리아파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신모설(神母說)을 주장하였다.

논란이 거세어지자 동로마제국의 테오도시우스 2세와 서로마제국의 발레리아누스 3세는 AD431년에 에베소스 공의회를 소집하여 네스토리우스 일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들을 국외로 추방하였다.



7-8세기 경주에서 발견된 성모 점토상(송실대 기독교박물관)



1956년 경주 불국사 대웅전 석등밑에서 8-9세기때의 십자가를 수습하였다



몽골 제국때의 네스토리우스 유물



당덕종 781년에 세워진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발해 용원부에서 발견된 삼존불상이 십자기를 목에 걸고 있다

진실을 얘기하면 네스토리우스 무리들이 풍랑으로 회의가 지연되는 틈을 타서 반대파가 일반적으로 공회를 열어 네스토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네스토리우스는 이집트에서 한 많은 여생을 마쳤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페르시아, 인도,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의 긴 여정을 거쳐 당나라에 이르게 된다.

서기 635년에 시리아에서 파견한 알로펜이라는 선교사가 처음으로 경교를 전하게 되었고 당태종은 정관 9년 635년에 재상 방현령을 보내 이들을 환영했고 이들로 하여금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승려를 두어 포교하도록 하였다.

교회 이름을 페르시아에서 전해졌다고 하여 파사교(波斯敎)라 불렀는데 나중에는 로마에서 왔다고 해서 로마의 한자 이름인 대진(大秦)교로 부르게 되었다. 나중에는 광명정 대한 종교라 하여 경교로 부르게 되었다.

당덕종때는 "대진경교 유행중국비"가 781

년에 장안 대진사 경내에 세워졌다. 특이한 점은 당나라 사정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허용하고 일부다처제를 묵인하게 되었다.

속일본기 성무천황년간에 738년 당나라 사람 황보(皇甫)가 페르시아 선교사 이밀예(Millis)를 동반하여 천황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신라나 발해에서도 경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당나라 제 15대왕 무종은 평소에도 도교에 심취하고 불교를 박해하여 강제로 사찰 4600개소를 헐고 26만명의 승려와 여승을 환속시켰다. 당무종은 불교와 더불어 경교, 마니교, 조로아스타교 등 외국인인 만든 종교를 박해하고 살해하였으니 중국 역사에서는 이를 당무종의 회창(會昌)폐불이라고 불렀다(845).

그 여파로 생길 황소의 난(878)에서 경교도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되어 이 사건이후로 경교 신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지위를 감추고 중앙아시아와 만주, 몽골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전상품 1년 약정

\$39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주최 Rising Stars Concert 2021

장유진 바이올린
브래넌 조 첼로
New York Classical Players
김동민 지휘



장유진

김동민

브래넌 조



~ PROGRAM ~

로시니: 현을 위한 소나타 1번 G장조

제임스 나: 세 비올라와 현을 위한 협주곡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 이중 협주곡 (백유미 편곡)

9월 18일 (토) 저녁 7시반

Jordan Hall

New England Conservatory

30 Gainsborough St. Boston, MA

Tickets: www.kcsboston.org (781) 223-4411



후원

주 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
매사추세츠한인회





NAMU • 나무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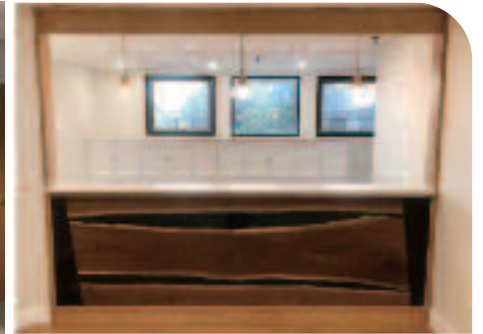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WHY NAM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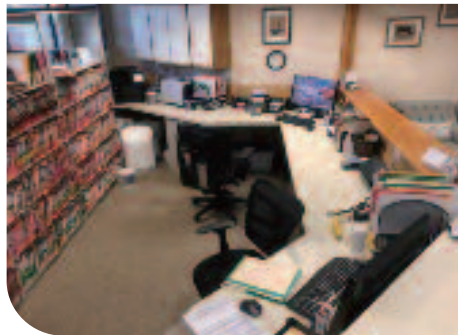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 02142



Susan Ahn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ty.group

Kakao ID: susan1223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습니다!